

安東金氏大宗會報

亨會 泰會 金金 金金 金金
發行人 金金 金金 金金
編輯人 金金 金金 金金
印刷人 金金 金金 金金

發行處
서울 東大門區徽慶1洞 112-49
安東金氏大宗會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091

非賣品
이會報는 通常會費를 年間 5,000원 以上을 納付하신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하오니 會費未納하신 宗親께서는 꼭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員會(理事及監事)開催 一九九一年度第二次任員會

지난 四月十一日 이번 理事會는 九 檜谷洞林野가 道路 上午十一時부터 下 一年度 決算과 九二 擴張工事로 報償金 午二時까지 本安東 年度 豫算審議를 하 四拾六萬七千壹百七 金氏會館에서 一九 是 重要한 會議이오 拾萬을 받았으며 檜 九一年度 第二次 任員 眞摯한 討議를 谷洞所在 位土、田 員會를 在籍任員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四八四坪을 壹千四 十名中 三十八名의 다.

參席으로 成員이되 는 忠烈公先祖任의 百十九坪을 金 壹千 了다. 이날 任員會 配位이신 竹州 朴氏 是 會順에 依하여 할머니 時享를 同日 百員에 買入하기로 國民儀禮와 先祖英 會 享祀를 올리도록 契約을 締結 했습니 靈에 對한 默念이 할 豫定이오니 諒察 다.

있는 後 泰亨會長任 하여 주시기 바라며 的 人事말씀에서 바 今年事業의 하나로 立한 忠淸觀察使의 卍신데도 宗事를 爲 忠烈公先祖任의 墓域 頌德碑를 復元建立 하여 많은 參席을 擴張工事와 階段築 하는데 大宗會에서 하여 주셔서 感謝하 造工事까지 施工할 도 補助金을 寄贈했 다는 말씀과 公州宗 豫定이오니 많은 協 親會에서 忠淸觀察 助를 바라는바이고 使를 歷任하신 內분 그동안 이루어오던 度 決算報告를 相棋 的 永世不忘碑을 建立 獎學事業을 今年부 復元하였고 國會議 터 實施하기 爲하여 同時에 發表하였으 員選舉에 立候補한 獎學規程도 制定하 며 孝植監事任의 一 宗親 五名을 두루 였사오니 여러 任員 九九一年度 決算에 訪問하여 激勵도 했 의 協助를 바란다 對한 監事結果를 報 告하였다.

한분도 當選이 안되 음 常任副會長 崙會 告하였다. 一九九一年度 豫 算案에 對하여 當任 副會長 崙會氏가 豫 算案에 對하여 當任 副會長 崙會氏가 豫

算案의 款項目을 計 二學期부터 實施하 數說明을 하면서 審 計로 審議通過 하 議課程에서 各 理事 으며 大宗會報의 發 任의 質問을 받으며 行에 있어서 經費過 進行上 多小 異論은 重으로 通常會費를 있었으나 別 修正 없 萬원으로 引上할 것 이 通過되었다.

이어서 獎學事業 間 保留하기로 決議 規程을 遂條審議를 하고 閉會宣言을 하 하 若干의 條項修 고 今年度 任員會를 正을 하 今年度 마쳤다.



一九九一年度 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九一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無漏 參席하시 기를 바라오며 別途 個別通知는 一切 省略하오니 諒知하시고 隣近 宗親과 相互連絡하시와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一、日時... 一九九二年 五月二日 土曜日
午前十一時 時間嚴守(雨天不拘)
- 二、場所... 昌慶宮(舊昌慶苑內)
交通便 地下鐵一號線 鍾路三街 下車 市內버스便

- 255-1 6820-1 3484-1 8513 63205 331710

- 三、附議案件
1、一九九一年度 決算報告
2、一九九一年度 豫算審議
3、其他事項

四、參考事項 昌慶宮을 入場하여 總會場에 오시기 前에 大宗會 에서 發行하는 入場券을 正門 앞에서 案內員이 配 付하오니 入場券을 받아가시고 入場하시기 바랍니다 (個人 入場時는 入場料를 別途 五四〇원을 내시 게 되오니 入場券을 꼭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五、會 費... 壹萬원(通常會費五、〇〇〇包含)
當日晝食과 記念品 提供

一九九二年 四月 十二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泰 亨 白

翼元公派 派譜增刊公告

今般 翼元公派 派譜를 發刊하여 希望部數만 製作한 바 配本이 끝난 現在 여러 宗親께서 購買要請이 殺到하오니 少數 增本再版은 不可能하여 五百部以上이면 再版할 계획이오니 派譜購入을 希望하 시는 宗親께서는 다음과 같이 申請하시기를 公告합니다.

一、申請期間... 一九九二年 七月三十日限
二、申請接受處... 翼元公派宗親會
電話: 231-2907
一九九二年 四月 十五日
安東金氏翼元公派宗親會 會長 金吉成 白

大護軍公派 派譜刊行公告

다음과 같이 大護軍公派에서 收單業務를 取扱하고 있아오니 隣 近宗親과 相互連絡을 하셔서 派譜發刊事業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기 를 仰望합니다.

一、收單期間... 一九九二年 七月末日限
二、收單金 및 派譜代金은 直接問議할 것
三、連絡處... 1. 全南 咸平郡 海保面 大倉里
金在權(電話: 231-0460)
2. 全南 寶城郡 得根面 三亭里
金敦會(電話: 521-3923)

族譜奉安儀式

族譜를 새로이 奉安할 때에는 族譜를 床 위 에 모셔 놓고 깨끗한 그릇에 井華水를 그 앞에 올려놓고 두손 모아 拱手、再拜한 後에 奉覽 하는 것이 通例입니다.

이 原稿는 지난 7월 11日, 弘益學院 主催로, 世宗文化會館, 大會議場에서 著名人士의 學術發表가 있는 자리에, 우리 大宗會, 名譽會長 이신, 金明會博士께서, 發表하신 原稿를 掲載해서 紹介합니다.

— 編輯 室 —

弘益人間과 教育理念

— 大學教育을 中心으로 —

金 明 會(政治學 博士) 前國會議員
社團法人 韓國學術研究院 理事長
安東金氏大宗會 名譽會長
前延世大學校 教授·大學院長 淸州大學校 總長

(전호에서 계속)

또한 第2條에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針을 세운다. (1)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필요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引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 (2) 愛國愛族의 精神을 길러 國家의 自主獨立을 維持 發展하게 하고 나아가 人類平和 建設에 寄與하게 한다. (3) 민족 固有의 文化를 繼承 昂揚하며 世界文化의 創造 發展에 貢獻하게 한다. (4) 眞理探究의 精神과 科學의 思考力을 培養하여 創意的 活動과 合理的 生活을 하게 한다. (5) 自由를 사랑하고 責任을 尊重하며 信義와 協同과 愛敬의 精神으로 調和있는 社會生活을 하게 한다. (6) 審美적 情緒를 涵養하여 崇高한 藝術을 鑑賞 創作하고 自然의 美를 즐기며 餘裕의 時間을 有効히 使用하여 和諧 明朗한 生活을 하게 한다. (7) 勤儉 勞作하고 務實力行하며 有能한 生産者요 賢明한 消費者가 되어 眞實한 經濟生活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弘益人間의 理想을 우리의 教育理念으로 삼고 있음으로 우리의 日常生活의 根據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3) 弘益人間과 國民教育憲章

1968년에는 우리의 教育理念을 더욱 補強하고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國民教育憲章을 制定 公布 하기에 이르렀다. 그 序頭에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의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言及하였으며 이어 憲章은 「祖上의 빛나는 業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自主獨立의 姿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人類共榮에 이바지 할 때다」라고 하여 이것을 우리의 教育指標로 삼는다고 하였다.

教育憲章은 이어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社會 生活 面에 있어서는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尚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북돋운다. 라고 하였다.

나와 國家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나라의 隆盛이 나의 發展의 根本임을 깨달아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을 다하여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인다」라고 하였으며 憲章은 또한 「反共 民主 精神에 투철한 愛國愛族이 우리의 삶 的 길이며 自由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國民教育憲章은 그 內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建國理想인 弘益人間의 理想을 實際로 實踐하는 綱領이라고 할 수 있다.

3. 弘益人間과 韓國思想

弘益人間과 韓國思想을 論함에 있어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花郎道 精神과 東學思想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코자 한다.

(1) 弘益人間과 花郎道 精神

敬天 崇祖 愛人의 理想과 民主의 原理를 尊重하는 民族團結 民族統合의 原理로서의 弘益人間의 精神을 現實의 實現하기 爲해 具體的으로 나타난 것이 花郎道라고 할 수 있다. 花郎道가 나타나게 된 原因을 살펴보면 當時 新羅의 國情이 西로 百濟와 北으로 高句麗로 부터 繼續 侵略을 받음으로서 極히 困難하였을 때 一大 愛國의 國民運動을 일으켜 士氣를 振作시키고 人才를 養成하여 國難을 克服하고 國威를 宣揚코자 하였던 것이다.

花郎道의 思想的 內容을 살펴보면 “國有玄妙之道 曰 風流, 設教之源, 備詳先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 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冠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桂史之崇也, 諸惡某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라고 하였다.

즉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고 한다. 여기에는 儒教 佛教 道敎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生命과 接觸하여 教化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家에서는 孝道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忠誠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이다 나쁜 일은 하지않고 착한 일만 한다는 것이다.

花郎道의 理想은 儒·佛·仙 三敎가 融化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中道 和合의 原理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花郎道의 修養方法도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不偏不黨한 原理를 追求한다는 것이다.

三國史記에 依하면 花郎道는 「相磨以道義, 相悅以歌樂 游娛山水 無遠不至」라고 하였다. 즉 서로 道義로서 鍊磨하고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山水로 놀러다니며 즐겼는데 全國坊坊曲曲을 누비면서 義·情·體의 三位一體의 教育을 추구하였다.

이와같은 教育을 통하여 國家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였으니 훌륭한 帝相과 忠誠된 臣下 그리고 뛰어난 將軍과 용감한 軍人이 많이 排出되었다고 한다.

花郎道 思想은 우리나라 建國理想인 弘益人間의 理想을 根幹으로 하여 儒敎의 忠孝思想, 佛敎의 菩薩道 精神 그리고 道敎의 心身 鍛鍊을 綜合的으로 體係化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弘益人間과 東學思想

18세기 末葉에 이르러 儒敎·佛敎 및 天主教 思想에 反對하여 나타난 것을 東學이라고 한다. 이 天道敎는 韓國의 創意性을 誇示한 것으로 當時 民族의 覺醒에서 비롯된 民族主義의 性格을 띤 宗教라고 할 수 있다.

當時 時代의 要請에 부응하여 나타났던 東學은 그 布敎에 있어서 비교적 짧은 時日內에 크게 成功하였다고 할 수 있다. 時代의 要請이라고 함은 外勢侵入에 對한 民族의 反撥心의 發露로서 西學에 對한 東學의 呼稱이라고 하겠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生活 理想이 되어 왔던 佛敎나 儒敎가 당시 더 이상 民衆을 이끄는 指導理想으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東學을 낳게한 根本原因이라고 하겠다.

東學의 敎理는 “人乃天”, “天心即人心”의 思想을 根本으로 삼았다. 人乃天의 原理는 人間의 主體性을 강조하고 地上天國의 理想과 萬民의 平等을 主唱하였던 것이다. 이 主張이야말로 弘益人間에서 나타난 人本主義에 입각한 自由 平等 博愛의 思想과 合致된다고 하겠다.

東學의 唱導者 崔濟愚는 21字로 된 祝文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 定永世不忘 萬事知”를 創造하였다. 즉 至氣가 지금 나에게 충분히 내리기를 바라며 내가 한울님을 모시면 그 놀라운 德이 터득되고 한울님을 깊이 잊지않으면 萬事가 깨달아 진다는 것이다.

또한 東學은 “弓弓乙乙”이라는 부적을 태워 마시면 濟病長生하고 貧困에서 解放되어 永生無窮 한다는 多分히 迷信의 面도 엿볼 수 있다. 當時 三南地方에서는 社會的인 不安과 疾病이 크게 流行되고 있었던 關係로 敎理를 믿는 사람이 急速度로 늘게 되었다.

天道敎를 믿는 信徒들의 社會改革運動은 그 當時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重要한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東學은 革命 運動으로 말미암아 淸日戰爭(1894-5)이 일어났고 이 結果 日本의 勝利로서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사이의 勢力均衡이 깨트려지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케 하였다. 韓半島에 있어서 日本이 더욱 그의 勢力이 擴張되는 반면 淸國의 勢力은 衰退하게 되었다. 이로 부터 10년후에 일어났던 露日戰爭(1904-5)은 다시 日本의 戰勝으로 韓半島는 日本의 獨舞臺가 되었고 마침내 日本은 武力으로서 強制로 韓國을 支配하기에 이르렀다.

4. 大學教育의 當面課題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教育法에 依據하여 弘益人間의 理想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大學마다 그 設立 目的이 있기는 하나 根本的으로는 우리의 建國理想 즉 弘益人間의 理想을 여하히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大學教育의 當面課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大學의 發展過程

해방 이후 大學이 후추죽순처럼 설립케 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라고 하겠다. 解放 直前에는 單 1個校의 大學 밖에 없었던 것이 46년이 지난 現在에 있어서는 綜合大學校가 71個校이며 4年制 單科大學이 44個校에 그리고 2年制 專門大學이 118個校로서 엄청난 量의 增加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大學이 팽목할 程度로 量的 膨脹을 招來하였으나 質的으로는 이를 따르지 못하였음은 事實이라고 하겠다. 한때 불미스럽게도 大學을 象牙塔 대신에 牛骨塔이라고 불리웠던 것을 記憶한다. 그러나 漸次的으로 施設도 擴充되고 또한 敎授陣도 많이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解放 直後에는 거의 全無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敎授陣이 不足하였으나 그 동안 國內外에서 많은 學者들이 排出되어 지금은 世界的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향상 발전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大學이 발전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國民全體의 놀라운 教育熱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比較的 짧은 기간에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發展을 가져온 原動力은 教育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2) 大學教育의 內容

大學教育의 內容을 보면 專攻敎育과 敎養敎育의 두가지로 大分하여 생각 할 수 있다. 專攻敎育은 專門의 知識을 習得하는 반면 敎養敎育은 보다 더 폭 넓은 敎育과 훌륭한 人格을 形成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各國의 경우를 보면 특히 先進各國에 있어서는 學部過程은 대부분 敎養敎育에 不過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專門의 學問敎育은 대개 大學院에서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形편에서는 大學院 敎育은 극히 一部에 지나지 않고 大部分의 學生은 學部를 마치고 社會에 進出하게 됨으로 事情이 다르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엽에 있어서 國立 서울大學校를 위시한 여러大學에서 敎養學部 또는 敎養過程部를 設置하여 敎養敎育을 強化시키도록 制度의 改革을 斷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試圖는 거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專攻을 더욱 擴充해야 한다는 意見과 그리고 敎養敎育을 더욱 重要視 해야 한다는 敎授들의 意見이 對立되었으며 結果的으로 專攻敎育을 強調하는 敎授들의 意見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敎養學部制度는 2-3年 實施後에 漸次로 廢止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웃 日本에서도 우리와 같은 經路를 밟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